

영장 청구 신중해졌다

광주지검 청구 건수 5년새 절반으로 '뚝'

공판중심주의 확대 속 범인 발부율도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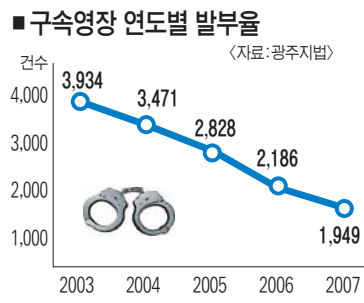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상 적법절차 및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고,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급감하고 있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3년 3천934건 ▲2004년 3천471건 ▲2005년 2천828건 ▲2006년 2천186건 ▲2007년 1천94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절반(49.5%) 가까이 줄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또한 2003년 90%에서 ▲2004년 84.2% ▲2005년 83.9% ▲2006년 74.2% ▲2007년 75.9%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수사과정상 적법한 절차와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데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것도 영



장 청구가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 100% 영장 청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실 여부 등을 따져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상해 사건도 과거 4주 이상에서 최근에는 8주 이상으로 영장 청구를 완화하는 등 인신 구속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피해자 회복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엄격히 적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 보호에 따른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수사단계의 증거자료 보다 법정 진술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거 가치가 부여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인신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영장 청구는 더욱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율과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2003년 4.4%, 2004년 3.8%, 2005년 3.0%, 2006년 2.5%, 2007년 2.3%로 줄었고, 영장 발부율은 2003년 86.3%, 2004년 85.1%로 줄다 2005년 86.8%로 소폭 상승했으나 2006년 83.5%, 2007년 78.2%까지 낮아졌다.

전체사건 인원 대비 구속영장 발부 비율도 1999년 4.5%(11만763명)에서 2007년 1.8%(4만6천20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활짝 핀 벚꽃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30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내 산책로에서 만개(滿開)한 벚꽃을 감상하며 걷고 있다. 만개 상태의 벚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렁이 단팔뿔' 녹취테이프 분석 의뢰

'지렁이 단팔뿔'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제보자가 제보 내용을 반복한 정황이 담긴 녹취 테이프를 (주)S식품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음성 재생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은 이 테이프는 사건 발생일인 지난 24일 오후 S식품 관계자가 제보자 중 1명인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만나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이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하지만 경찰은 이 녹취 테이프의 녹음 상태가 불량해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분간하기 힘들어 국과수에 음성 재생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테이프 음성이 복원될 경우 김씨가 제보를 반복하며 5천만원을 요구했는지, S식품 관계자가 김씨에게 5천만원 제금을 약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

연세대 120억 날아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제1066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연월일·주소·이름을 쓰는 것에 덧붙여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비속 없이 숨졌는데, 우리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본인 유고시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주소·성명이 자필로 써져 있었지만 날인이 빠져 있었다. /연합뉴스

교도소·구치소 등

알몸 신체검사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 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향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연합뉴스

장기 팔아 병역 면제

대학 휴학생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장기팔매조직에 신장을 팔아 병역을 면제받은 임모(20·전남 D대학교 1년 휴학)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돈을 주고 임씨의 신장을 이식 받은 김모(43)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임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넘긴 김씨의 외조카 강모(2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의 신장을 장기팔매조직에 넘겨주고 2천500만원을 받은 뒤 수술 이력을 바탕으로 입대를 기피한 혐의다. /이종형 기자 gilee@kwangju.co.kr

나원침 (7471)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취 및 상암관영**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조카 괴롭힌다" 삼촌이 보복 폭행

삼촌이 보복 폭행

○정신지체 장애인인 초등학생 조카를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보복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영광경찰은 30일 조카의 친구와 전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이모(38·영광군 영광읍)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경 영광군 영광읍 모 초등학교에 찾아가 조카 이모(10)군의 같은 반 친구 지모(10)군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이씨는 또 이날 조카의 전 담임교사에게도 찾아가 "지난해 가을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 왜 조카를 출전시키지 않았느냐"며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평소 조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담임교사로부터 차별 받는 것 같아 화가 났었다"고 진술. /영광=조익성기자 ischo@

광주MBC 문화방송

행산·장가제

무인 + 황주 황산 칩형 (2008년 4월 27일 ~ 5월 17일)

무인 + 정시정예 칩형 (2008년 4월 27일 ~ 5월 17일)

문의: 1062-226-6070